

선발 버티고, 타선 살아나야 흐름이 바뀐다

KIA 주간 전망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초반 레이스에서 뒤쳐진 채 한 주를 맞는다. 분위기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6일 기준 KIA는 2승 6패(승률 0.250)로 롯데-키움과 함께 공동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선두 SSG(7승 1패)와의 격차는 5경기까지 벌어졌다. 지난주는 2승 4패에 그치며 개막 이후 세 시리즈 연속 무진시리즈를 기록했다.

시즌 초반이지만, 더 늦기 전에 끊어내야 할 국면이다.

이번 주 6연전은 단순한 일정이 아니다. 순위 반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시험대다.

먼저 주중에는 홈에서 4위 삼성과 맞붙는다. 삼성은 4승 3패 1무로 중위권에 자리하고 있다.

프로야구 팀별 순위 (6일 기준)

순위	팀명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SSG	7	1	0	0.875	0
2	NC	6	2	0	0.750	1
2	kt	6	2	0	0.750	1
4	삼성	4	3	1	0.571	2.5
5	LG	4	4	0	0.500	3
5	한화	4	4	0	0.500	3
7	두산	2	5	1	0.286	4.5
8	롯데	2	6	0	0.250	5
8	KIA	2	6	0	0.250	5
8	키움	2	6	0	0.250	5

'마운드 강제' 삼성戰, '화력 우위' 한화戰...맞춤형 전략맞대응 네일·올리 견고함 증명, 양현종·이의리 초반 부진 상승 걸림돌 '들쭉날쭉' 팀 타율 0.232 하위권...중심타선 나성범 부활 관전

승률(0.571)보다 눈에 띄는 건 마운드다.

팀 평균자책점(3.82)이 리그 2위로, 전체적인 운영이 탄탄하다. 선발과 불펜 모두 안정적이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투수 운용 완성도가 높아진다.

KIA는 경기 초반 흐름을 잡는 게 중요하다. 초반 주도권을 내주면 경기 전개가 불리해질 수 있다. 삼성 타선이 경기 후반(7-9회) 3할대 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부담이 더 커진다.

선발은 양현종-김태형-네일이 나선다.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8승 8패로 팽팽했다. 삼성 유니폼을 다시 입은 최형우와의 맞대결 역시 팬들의 관심을 모은다. 주중 비 예보도 경기 운영 변수로 이어질 수 있다.

주말에는 대전으로 이동해 공동 5위 한화(4승 4패)를 만난다.

한화는 타격 지표에서 확실한 색깔을 보인다. 팀 타율 0.307로 리그 상위권. 타선의 장타력과 연결 능력이 동시에 살아 있다.

대신 빈틈도 있다. 마운드 불안이 뚜렷하다. 팀 평균자책점 7.40으로 리그 최하위권이고, 불펜 평균자책점도 10점대다.

KIA 입장에서선 후반 승부로 끌고 갈수록 승산이 높다. 선발 공략에 집착하기보다, 경기 중후반 상대 불펜을 겨냥하는 운영이 유효하다. 지난해 상대 전적 4승 12패의 열세를 고려하면, 이번 원정은 의미가 크다.

결국 이번 주는 '초반 삼성전 후반 한화전'으로 성격이 나뉜다. 두 시리즈 모두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문제는 KIA 자체다. 전력의 안정이 선행돼야 한다.

타선이 들쭉날쭉하다.

팀 타율 0.232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특히 중심 타선의 생산력이 기대에 못 미친다. 지난주 3-5번 타선의 타율은 0.215에 그쳤다. 득점 연결이 끊기면서 경기 전개가 풀리지 않았다. 주장 나성범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이유다.

마운드도 편차가 크다.

외국인 투수 네일과 올리는 제 몫을 하고 있지만, 국내 선발진은 이닝 소화와 경기 운영에서 흔들리고 있다.

피출루율(0.417)과 WHIP(2.20)이 10개 구단 중 가장 높고, 볼넷도 많은 편이다. 양현종과 이의리가 얼마나 버텨주느냐가 관건이다.



7일부터 안방에서 열리는 삼성과의 3연전에 선발 출격이 예고된 양현종(왼쪽부터), 김태형, 네일. <KIA 타이거즈 제공>

해법은 명확하다. 선발이 버티고, 중심 타선이 살아야 한다. 기본이 안 되면 어떤 상대를 만나도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 KIA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초반 부진을 끊어내고 중위권으로 올라설 것인가, 아니면 하위권에서 머물 것인가. 이번 주 6연전이 그 방향을 가를 가능성이 크다. /주홍철 기자

'서틀록 여제' 안세영, 올림픽·세계선수권·아시아게임 이어 '아시아 제패' 도전

메이저 그랜드슬램 '마지막 퍼즐' 정조준

애틀랜틱대회 오늘 중 닝보서 개막

세계 배드민턴의 '절대 강자' 안세영(삼성생명)에게 우승하지 못한 대회를 찾기는 쉽지 않다.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아게임 금메달을 이미 모두 목에 걸었고, 출전하는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마다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코트에 선다.

그런 안세영에게도 유독 인연이 닿지 않았던 '마지막 퍼즐'이 있다. 바로 아시아 최고 권위의 개인전 대회인 아시아선수권대회다.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7일 중국 닝보에서 개막하는 이번 대회에 출전해 '메이저 대회 그랜드슬램' 달성해 나선다.

아시아선수권은 BWF 월드투어 슈퍼 1000급에 해당하는 권위 있는 대회다. 총상금 규모가 50만 달러(8억3천만원)에 달하며, 우승자에게는 1만 2천점의 랭킹 포인트가 주어진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배드민턴 강국이 밀집한 아시아의 특성상 "올림픽보다 우승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만큼 난도가 높다.

안세영은 앞서 2022년 동메달, 2023년 은메달을 획득하며 정상 문턱에서 아쉽게 발걸음을 돌렸다.

지난해에는 허벅지 부상 여파로 결장했고, 2024년에는 8강에서 고배를 마셨다.

본인이 과거 직접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아게임에 이어 아시아선수권까지 석권해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만큼, 이번 대회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다.

올해 역시 세계 톱랭커들이 총출동한다. 왕즈이(2위)를 비롯해 천위페이(3위·이상 중국), 야마구치 아카네(4위·일본) 등이 안세영의 대항마로 꼽힌다.

하지만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안세영이 압도적이다.

한때 '천적'이라 불렸던 천위페이를 상대로 최근 8차례 맞대결에서 6승 2패를 기록하며 완벽히 우위를 점했고, 야마구치에게도 지난해 7경기 중 6승을 따내며 천적 관계를 청산했다.

비록 지난 전영오피 결승에서 왕즈이에게 패



'서틀록 여제' 안세영 /신화통신=연합뉴스

하며 36연승 행진이 멈췄지만, 상대 전적에서는 여전히 18승 5패로 크게 앞서 있다.

안세영은 연승 행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신발 끈을 조여 매며 아시아 최정상 정복을 정조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청 스쿼시팀 양연수 전북회장배 개인전 준우승

전남도청 스쿼시팀 양연수(사진)가 전국대회에서 값진 준우승을 차지했다.

양연수는 지난 4일 전북 전주에서 막을 내린 '제20회 전북회장배 전국스쿼시선수권대회' 여자 일반부 개인전 준우승을 차지했다.

1회전에서 2026 국가대표 전야인 (충남체육회)을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완파하며 산뜻한 출발을 보인 양연수는 2회전에서는 팀 동료 서효주(전남도청)를 상대로 세트점 끝까지 3대2(마지막 세트 11-9) 승리를 거뒀고 8강에서는 신유신(대구시청)을 3대1로 제압했다.

준결승에서 송동주(광주시체육회)를 3대2로 꺾은 양연수는 허민경(경남체육회)과의 결승전에서는 연이은 접전으로 인한 체력 부담을 극복하지 못하고 3대3으로 완패하며 아쉽게



준우승으로 대회를 마쳤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혼으로 값진 준우승을 이뤄낸 양연수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전남 스쿼시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다 시한번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선수들이 더 큰 무대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

빛고를 체육인재, 스포츠과학으로 새 '길' 찾다

광주시체육회, 현장 중심 '스포츠과학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호평

광주시체육회가 지역 스포츠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3일 광주스포츠과학원에서 조선태 스포츠 전공 학생 57명을 대상으로 광주스포츠과학센터 연구원과 컨디셔닝센터 트레이너, 건강운동관리사 등 현장 전문인력 역할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프로그램은 엘리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는 다양한 스포츠 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춘 운동생리학 및 운동역학, 스포츠 심리 및 컨디셔닝 전략 등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는 최신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돼 참가자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체력 측정과 스포츠 컨디셔닝 과정에 직접 참여해 스포츠과학 지원이 이뤄지는 현장의 분위기를 체험하고 실무적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전담주 광주시체육회장은 "앞으로도 스포츠과학 지원을 기반으로 청



년 인재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며 "빛고를 체육 인재들이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확보한 임애지(오른쪽) <대한복싱협회 제공>

화순군청 임애지, 2024 파리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임애지(화순군청)가 아시아선수권대회 4강에 진출하며 올가을 아시아게임에 향한 기대감을 높였다.

대한복싱협회는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진행된 2024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임애지가 준결승에 진출해 동메달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여자 54kg급에 출전한 임애지는 8강전에서

쓰키미 나미키(일본)와 치열한 접전 끝에 3-2 판승을 거두고 준결승에 안착했다.

두 선수 모두 올림픽 무대에서 메달을 목에 걸었던 선수라 관심을 끈 경기였고, 임애지가 뛰어난 집중력을 발휘하며 값진 승리를 따냈다.

임애지는 프리티 프리티(인도)를 상대로 결승형 티켓을 다룬다. /연합뉴스